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10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사순절기**: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냅니다.
5. 성경통독: 제8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98일) 진행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3/13(수) 8시 Zoom 기도회(에베소서 강해)
7. 감사: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신 우영자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8. 은퇴목사 접대: 지난 4일 은퇴목사님 30명을 정성껏 모심에 감사드립니다.
9. **일광절약**: 이번 주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2,458.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임현선, 조병기,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해련.

감 사: 김반석, 김선훈 노현주,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김반석, 박병기, 이경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선교헌금): 유혜영, 조병기, 조은미.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혹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10호 2024년 3월 10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헤영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7:2-10 다 같이
- 설 교 Sermon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조병우 목사
- 봉헌송 Hymn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기도회

밤 8:00 (ZOOM)

새벽 기도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유헤영 권사	조병우 목사	우영자 권사	조민연 권사
다음주	조은미 사모	박종님 전도사	박종님 전도사	박종님 전도사



- 예수님을 꼭 붙들고 생을 걸으라! -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곧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러려고 애쓸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별로 할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꼭 붙들라고 우리를 권하십니다.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것은 옛적의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은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갈 2:20)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내 힘으로 인생험로를 걸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혼자서 그에게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생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We can't walk the line of living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apart from faith in Christ. But here's the good news - we don't have to! No amount of attempting to earn our way to God will ever cut it. So are we passive in our salvation? No! Our invitation is to cling to Christ. Clinging to Jesus means putting to death an old, independent way of living; it's as if we ourselves have died. Yet, we go on living. But “the life [we] now live in the body, [we]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Gal. 2:20). Where are you today trying to walk the path of life with your own strength? God has not called us to walk out on our own to Him; He's called us to cling to Jesus and walk through this life with Him.